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이르면 2026년 의대정원 배정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 목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나설 듯
양 대학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전남 첫 의과대학 신설의 마중물이자 최대 난제였던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 통합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대학간 통합과 이를 전제로 한 통합의대 신설이라는 두 트랙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과 대학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간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끝에 지난 15일 6개항의 통합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대학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거는 동시에 이르면 2026학년도 통합의대 첫 정원 배정을 위한 단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우선, 발등의 불인 통합의대의 경우 22일 통합의대 명의로 교육부에 전



목포대-순천대 대학본부.

남 국립 통합의대 신설 추천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29일까지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의평원)에 신설 의대 예비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와 의평원 신청서에는 통합대학 교명, 인력양성 계획, 대학본부와 운영 거버넌스 등이 담기게 되고, 교지(校地)를 비롯해 교원 확보, 교육과정, 병원, 기숙사 등 5대 핵심쟁점에 대한 구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육부는 신설 의대 정원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치게 되고, 전남 통합대학은 내년 4월 2026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 때 통합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과 전형계획 등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대입 전형은 5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남 국립 통합의대는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서 2026년 3월 개교하게 된다. 정원은 정부 방침과 양 대학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 대학은 통합대학 신청 시 교육부가 정한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춘 대학이 통합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받되, 교육부 요건을 보완하면 즉시 통합대학으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통합대 출범과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행정·학사·정원구조 개편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대학은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양 대학 동수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양 대학 측은 "통합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대학으로 인해 대학간 통합 절차가 예전보다 빨라졌지만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로봇 엔드이펙터 사업 공모 선정

부산시가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달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내에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도입 및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드이펙터 지원센터 구축은 엔드이펙터 자체의 성능과 함께 연관된 센서, 액세서리 등 모든 장치가 연동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및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엔드이펙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글로벌학교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남교육청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글로벌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으뜸고등학교와 직업계고 간 팀을 이뤄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상생고등학교 형태로 추진한다. 으뜸고등학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지역 산업 연계 프로젝트 수업·글로벌 진로 직무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김천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 확보

경북 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원을 확보했다. 이 기금은 행안부가 인구 감소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한다.

김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 전국 18곳 지자체 중 상위 10%에 선정됐다. 확보한 기금은 농업 근로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쓰인다.

김종섭 김천시장은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귀농인의 정착을 유도해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해남군

나라꽃 무궁화 명소공모 3위

해남군은 옥천면의 지강 양한묵 생가 일원 '옥천 무궁화 동산'이 산림청 주최 대한민국 제1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3위인 장려상에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년 나라꽃 무궁화 명소를 선정하여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옥천 무궁화동산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 일원에 지난 2018년 조성되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박차

내일 '부산콘텐츠비즈타운' 개소 기업 발굴해 단계별 지원 체계 완성

부산시는 오는 21일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시설인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이 문을 연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즈타운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옛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38개의 기업 입주실, 회의실, 복합공간 등이 조성됐다.

비즈타운이 문을 열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창작-창업-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개소식은 21일 오후 4시30분 비즈타운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글로벌 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콘텐츠비즈타

운'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1부 행사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투자·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첫 해외 발제자로는 드림웍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사와 협업하고 있는 '툰포켓 스튜디오'의 대표 조 비탈레(Joe Vitale)가 글로벌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방향성을 잡는 노하우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중국, 캐나다, 유럽 등 글로벌 미디어 유통을 담당하는 '리시엔터테이먼트' 부사장 씨씨첸(Cici Zheng)이 중국 애니메이션·영상시장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와 개소식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행사 참가 신청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4곳 선정

여수시, 화순·영암·장성군 지정 내년부터 4~5년간 1220억 투입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와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4개 시·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화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영암 전남 대표 K-컬처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4~5년간 총 12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와 화순은 2025년부터, 영암과 장성은 2026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소당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도비 60~70%를 지원하며 300억 원 초과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여수 섬-잇(Sum-it) 트레일 사업은 여수 만항동 일대에 바다레일바이크, 마래아트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경관 명소화를 통해 여수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 춘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양면 일원에 난초 미래산업육성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진주시, 상수도관 교체로 年 28억 절감

연 평균 58.5km 노후 상수도관 교체

경남 진주시는 민선7기 이후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통해 연간 28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진주시는 유수율이 낮고 노후도가 심한 천전·성북·중앙·상봉·신안·이현·판문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58.5km 정도의 노후 상수도관을 대거 교체했다.

노후율이 2017년 46.2%에서 지난해에는 34.8%로 향상됐다. 유수율도 67.5%에서 75.6%로 높아져 연간 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2019년 환경부로부터 국비 16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지방상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사현장

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은 유수율이 낮은 광역상수도권역인 진성·사봉·일반성·이반성·지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상수관로(L=54km) 교체를 추진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통영시, 경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1위

총 243개 팀, 연인원 11.9만명 방문

통영시가 2024시즌 경상남도 시·군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스포츠 메카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24시즌 동안 축구 173개 팀, 농구 39개 팀, 육상 20개 팀 등 총 243개 팀, 연인원 11만9813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통영시를 찾았다. 시즌별로는 동계 시즌 10만4797명, 하계 시즌 1만5016명의 연인원으로 모든 시즌 통영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년 대비 3만8737명이 증가한 수치로 2024시즌 목표 달성률 141%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는 90억원 상당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계 전지훈련의 경우, 전년

대비 2만8439명이 증가하며 매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통영의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 숙소와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것으로 분석된다.

하계 전지훈련 역시 1만298명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통영시가 여름철에도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 도시의 장점을 살려 훈련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2025시즌에 전지훈련 유치 목표를 더욱 확대하고 전지훈련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스포츠 메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